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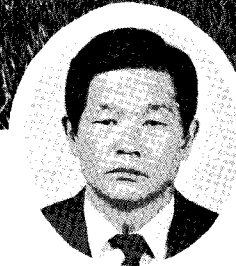
농정

초기박멸 목표로 방제에 총력



병충해 발생면적 전년대비 96%

태풍불구, 7년연속풍년 신화이룩



농림수산부 식물방역과
과장 안 신 환

금년도 병충해 방제사업은 “초기박멸”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기상의 악조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본는 초기의 태풍「셀마」호를 비롯하여 여덟 차례나 쏟아진 집중호우, 장기간에 걸친 장마 등 방제적기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까지 물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병충해만은 인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노력한 결과 7년연속 풍년이란 농정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신화를 남기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농민은 물론, 병충해 방제사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굳은 신념의 결실이라 평가하고 싶다.

태풍「셀마」호가 남부지방을 강타한 직후의 현지 주재지도, 부여·서천·공주 등 충남지역 집중호우시의 산림청 헬기를 비롯한 가용(可用)한 방제용 헬기를 총동원하여 실시한 방제 현장지도,

수해지역 병충해 방제에 큰 도움을 준 농약업체의 농약무상지원(수재의연금) 등은 금년도 병해충 방제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내년도도 기필코 풍년농사를 달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풍요롭고 안정된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병충해 방제사업을 결산해본다.

■ 병충해 발생상황

가. 발생여건

금년에는 지난 겨울의 이상기온으로 전년보다 도열병과 애멸구, 끝동매미충등의 월동량이 많았다(표1, 2참조).

또한 적기모내기과 생육초기의 기상호조로 잎도열병의 발생은 다소 억제되었으나 태풍 및 장마로 인하여 병원균의 밀도가 증가되었고, 감염기에 벼가 연약하게 자라 도열병 발생에 좋은 조건이 되었다. 한편 기계모내기 면적의 증가(30%→38%)와 밀식재배 등은 문고병 발생을 조

〈표 1〉 도열병균의 월동상황 (전국 151개 예찰소 조사)

(%)

구 분	연 도	월 동 전 (12월상순)		월 동 후			
				2월 상순		3월 상순	
		표 면	내 부	표 면	내 부	표 면	내 부
헤쳐편	'87	52	62	32	44	26	36
벗 췌	'86	52	62	27	38	20	29
야 적	'87	64	78	49	70	42	67
벗 췌	'86	64	78	45	68	35	60

〈표 2〉 애멸구·끝동매미충의 월동상황 (전국151개 예찰소 조사)

(마리)

해충명	연도	3월			4월			5월1일	합 계
		1 일	11일	21일	1 일	11일	21일		
애 멸 구	'87	3,686	8,183	10,371	7,400	6,947	5,579	4,089	46,255
	'86	2,418	5,332	7,412	7,034	5,209	5,604	3,727	36,736
끝 동 매 미 충	'87	963	2,074	3,140	3,087	4,092	3,843	3,153	20,352
	'86	728	1,546	2,697	2,748	2,912	3,085	2,364	16,080

장하게 되었다.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는 침관수 면적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벼잎을 손상시켜 백엽고병 발생에 호조건이 되었다.

벼멸구의 초기비래는 전년보다 10여일 빨랐고 8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날아 왔으며 흰등멸구와 멸강나방까지 극성을 부렸다(표3참조).

나. 병충해 발생상황

도열병·문고병·멸구 발생증가

이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금년도 병충해 발생면적은 전년대비 96%인 1,651천 ha에 머물렀다. 이를 병충별로 구분해 보면 병은 699천ha로 전년대비 93%였으며 그중 도열병이 106천 ha(전년대비 97%), 문고병은 522천ha(전년대비 101%), 백엽고병

은 44천 ha(전년대비 40%), 기타 27천ha(전년대비 150%)였다.

해충의 발생면적은 952천ha로 전년대비 99%였고 그중 멸구류가 548천ha(전년대비 106%), 이화명나방은 404천ha(전년대비 91%)였다(표4참조).

■ 병충해방제 추진상황

병충해방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기박멸”을 목표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방제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국 병충해방제 관계관 회의(6.19), 병충해 발생상습지의 종합방제 시범포 설치, 전국 33,108개 공동방제단 운영의 내실화, 긴급방제령 발동 등을 통하여 방제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긴급방제령 발동시에는 태풍과 집중

〈표 3〉 벼멸구·흰등멸구의 비래상황

(마리)

해충명	연도	6월	7월	8월	9월1~5일	계
벼멸구	'87	28	143,652	100,245	3,983	247,908
	'86	191	8,537	3,707	2,322	14,757
	'83	326	12,747	97,396	31,279	141,748
흰등멸구	'87	2,504	2,481,380	745,674	4,633	3,234,191
	'86	10,137	130,886	114,847	7,678	263,548
	'83	3,549	2,253,112	138,567	37,725	2,432,953

〈표 4〉 '87 병충해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

(1,000ha)

구 분		발 생 면 적			방 제 면 적		
		'87(A)	'86(B)	A/B(%)	'87(A)	'86(B)	A/B(%)
계		1,651	1,716	96	14,757	11,345	130
병	소 계	699	752	93	7,480	5,753	130
	도 열 병	106	109	97	4,234	3,396	125
	문 고 병	522	515	101	2,338	1,650	142
	백 엽 고 병	44	110	40	877	672	131
	기 타	27	18	150	31	35	89
해충	소 계	952	964	99	7,277	5,592	130
	멸 구 류	548	518	106	3,226	2,096	154
	이화명나방	404	446	93	4,051	3,496	116

호우로 침관수면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백엽고병 방제를 추가하는 등 세밀한 분야까지 예측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충해 발생상황을 미리 정확하게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산하 전국 151개 예찰소의 특기지도사를 포함한 전문예찰요원 304명과 위촉예찰요원 79천명을 통하여 중앙 및 지역 예찰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주요 병해충의 발생주기와 기상전망에 따른 방제적기를 판단, 방제와 연계되도록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였다(표5참조).

또한 대단위지역 돌발병해충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

여 752백만원을 지원하여 95천ha를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였고 2,136백만원을 지원하여 전국33천개 공동방제단의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전체 수도식부면적 1,259천ha 대비 11.7회에 해당하는 14,577천ha를 방제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130%에 해당된다. 특히 문고병은 142% 멸구류는 154%를 방제한 결과만 보더라도 얼마나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표4참조).

■ 농약수급 추진상황

태풍 「셀마」호가 내습한7월15일부터 「다이너」호가 물러간8월

31일 사이에 무려 6회에 걸친 집중호우로 이 기간중의 농약살포량은 상당히 줄었으나 제조업체는 경영이익의 확보를 위하여 출하물량을 증대하였을 것이므로 시중재고는 예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금년 9월30일 현재의 총 출하량은 55,600톤(기준약제 환산치)으로 전년도의 50,500톤보다 11%가 증가하였고 용도별 출하경향은 수도용이 12%, 원예용이 11%, 제초제가 7% 증가하였고 기타 농약은 4% 줄어들었다.

과잉출하로 10% 재고예상

그러나 농약살포기간이 짧았던 금년도는 농협정책농약의 반품증가추세('86: 350~400톤 → '87: 550톤)와 시판농약의 과당출고 경쟁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10% 이상은 시판상과 농가재고로 남아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금년도의 농약사용량은 눈에 띄이게 증가할만한 요인이 없었음에도 출하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한 "과잉출하년도"라고 특징지을 수 있겠다.

〈표 5〉 병해충발생 예찰정보 발표내역

예 보	주 의 보	경 보	계
12 회	4 회	7 회	23 회

수도용농약 공급량 16%증가

당초, 농협농약의 수급계획 수립시에는 매년 재고이월량이 많았던 도열병약, 문고병약 등의 살충제는 줄이고, 피해발생이 증가추세인 이화명나방 방제용농약을 늘리는 수준에서 약종간의 물량을 조절하였고, 제형별로는 동력분무기의 일반화에 따라 유액제 농약을 중점 공급토록 계획하였다.

금년도 수도용농약의 수급 계획량은 완제품이 9,400톤, 돌발병해충용이 3,000톤으로 총 12,400톤이었으나 농협을 통한 실제공급량은 7,995톤으로 '86년의 8,138톤보다 약간 적었고 시판공급분을 포함한 수도용농약의 전체공급량은 17,338톤으로 '86년의 14,895톤에 비해 16%가 늘어났다(표6참조).

〈표 6〉 수도권 농약수급 추진상황(농협)

(단위 : 톤/기준약제)

구 분		확 보 계 획			확 보 (A)	공 급 (B)	재 고	B/A (%)
		당 년	비 추	계				
계		9,400	3,000	12,400	11,397	7,995	3,402	70
살 균 제	소 계	4,720	1,470	6,190	455	3,891	1,564	71
	도 열 병	3,030	1,070	4,100	3,597	2,548	1,049	71
	문 고 병	1,100	330	1,430	1,163	784	379	67
	백 열 고 병	170	70	240	275	215	60	78
제	기 타	420	-	420	420	344	76	82
살	소 계	4,680	1,530	6,210	5,942	4,104	1,838	69
중 제	벼 멸 구	2,090	750	2,840	2,708	1,883	825	70
	이 화 명 충	2,590	780	3,370	3,234	2,221	1,013	69

금년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극소면적이긴 하나 일부 특수품종의 목도열병 피해와 도열병발생면적의 증가 등의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농약의 품질관리와 안전사용에 특히 중점을 두고 판매상교육, 겨울영농교육, 농약관리자교육 등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무리를 빚을만한 안전사고 없이 금년도 병해충 방제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농약관리제도의 발전적보완은 물론 업계, 학계, 연구소 등 관련기관이 서로 합심하여 보다 저독성이고 약효가 우수하며 값싼 농약이 많이 개발·보급되어 풍년농사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농약사용자 측에서도 농약포장지(라벨)에 표기된 내용을 반드시 읽고 그에 따라 사용함은 물론 약종간의 혼용가부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농약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